

지역 소식통

CCTV관제센터

파수꾼 역할 특특

순창군, 365일 24시간 운영 치매노인 실종사건 해결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효과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4월부터 24시간, 365일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각종사건사고 예방과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지킴이 역할을 특특히 해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 실종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군은 올해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해 3건의 치매노인 실종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치매 노인 실종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치매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확률이 낮다. 군과 경찰은 치매노인 사건 접수 후 실종지역 주변의 CCTV는 물론, 버스터미널 탑승 흔적 찾기, 읍내 전지역 CCTV를 통해 치매노인의 흔적을 찾고 이동 경로를 예측해 치매 노인을 가정의 품으로 돌려 보냈다. CCTV 관제센터가 24시간 운영되면서 얻은 결과다.

또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도 탁월하다. 군은 지난해에는 여성과 아동들의 야간 이동로나 활동 공간에 CCTV 9대를 추가 설치해 여성과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의 획기적 단초를 마련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주민들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실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후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는 분실물 찾기, 사고발생 도주차량 검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도 특특히 해내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12억원을 투자해 완공했다. 그동안 13개 부서에서 용도별로 설치되어 각각 운영 관리되고 있는 아동보호, 방범, 재난, 불법쓰레기 투기, 주정차단속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주정차단속 CCTV를 업무시간 중

로 후 방범용으로 활용하는 등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범죄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군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관제요원 등 분야별로 근무 요원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약 3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조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들은 물론 어린이 여성 등 범죄와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관제 능력을 더욱 강화해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팔 걷었다

순창 동계·인계·적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반찬꾸러미 지원

순창군 동계·인계·적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존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가정을 찾아 반찬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행복나눔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반찬꾸러미 지원사업은 동계·인계·적성면 내의 저소득층 15가구를 선정하여 올해 하반기 동안 월2회 총10회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2017년 7월 17일 동계면에 신설된 권역형(동계·인계·적성면) 맞춤형복지팀과 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일환으로 그 동안 기초수급자 등의 복지

혜택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형편이 어려워 곤란을 겪던 이들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동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일 일용 민간위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함께 추진해 주신인계·적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공공위원장을 맡은 양상구 동계면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기 위해 애써주신 면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마을 이장님을 비롯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나누면 큰 사랑이 되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도우미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순간 피해자... 전화금융사기 경계령

순창경찰 피해예방문화 확산 우쿨렐레 연주 이색홍보활동

순창경찰서가 여전히 기습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순창군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일품공원에서 우쿨렐레 연주와 함께 이색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순창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LINE4하모니 우쿨렐레 동아리' 회원들의 뽕계구름 등 총 4곡의 우쿨렐레 연주로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신나

는 무대를 선보이며 전화금융사기 이색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전화금융사기 유형으로 기존 보행권을 상탈하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고 속이는 대출 빚자 사기, 수사기관 사칭, 가족·지인 납치 빚자의 유형이 있으며 통장을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임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을 보내라', '돈을 줄테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 할 경우 양도하는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치료제도 없는 진드기 감염 주의해야"

고령자 감염시 사망률 높아 남원시보건소, 야외활동 시 긴옷착용 등 예방수칙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 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작업, 성묘·별초나 등산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며,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 소통 파란불

신파·요천지구 현장사무소 설치 운영... 상시체제 가동

남원시는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신파지구 상신마을회관 및 요천지구 식정동 요천마을회관, 이백면 남계리 계산마을회관에 상시체제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현장사무소에는 시 담당자 및 측량·조사 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담당자가 출장하여 사업목적 및 추진절차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지적재조사 측량에 대한 경계협의 기간인 9월 ~ 10월 중 집중 운영하여 현장에서 민원상담 및 경계협의 등으로 소유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지구 방문 시 경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신파지구 상신마을회관 및 요천지구 식정동 요천마을회관, 계산마을회관에 상시체제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는 신파·요천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하며 민원인의 의견청취 및 조정요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및 영농철 바쁜 주민들과 관의 거주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으로 지

적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63-620-6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